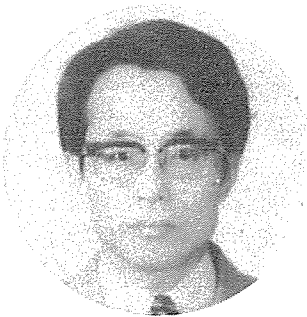


에너지 및 환경 교육

박 승 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근대에 이르러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포리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생활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미래문명의 향방을 가능케할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인류와 관계된 사회 문화적 문제요, 현대교육의 긴급한 과제라 하겠다.

유네스코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75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유고의 벨그라드와 소련의 티빌리시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환경교육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세계적 연합망을 구성하였고, 인간과 생물권계획을 통해 환경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1979년에 자연과학자, 사회학자, 정책담당자를 포함한 환경교육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980년에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이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과학교육학회는 에너지 및 환경교육의 포괄적인 협동적 연구개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러 활동을 추진하였다. 동 학회의 요청으로 문교부는 1981년 3월에 모나코에서 개최되었던 『유류 에너지 및 환경교육세미나』에 한국대표를 파견하였고, 또한 동학회의 요청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81년 8월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국제에너지교육 연구모임」에 한국대표를 파견하였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1981년 12월에 에너지 및 환경교육연구모임을 가졌으며, 동학회는 1982년 1월에 「에너지 및 환경교육분과」를 조직하여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하여금 에너지 및 환경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던바, 1983년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연구모임을 마련하였는데, 그 종합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발표 하였던 것이다.

에너지 및 환경교육 선언

産業社會에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생활의 質로 부터 극단의 경우에는 생존에 까지 관계되는 것으로서, 심각하고 긴박할 뿐만 아니라 서로 포리의 관계를 이루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나 극복은 종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에너지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政府의 인식은 動力資源部와 環境廳의 설립으로 그 의지를 명백히 하였으며, 文敎部의 敎育課程改編과 獎

學方針에는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全國民의 課題로 절실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學校 내외의 教育和 啓蒙에 있어서 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형식적이라 판단된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일반 教育和 啓蒙에 있어서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바람직하게 教育政策이 수립되고, 강력한 行·財政的 지원으로 의미있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다음과 같이 12가지 사항을 선언한다.

1. 에너지 및 환경교육은 全人教育, 平生教育에 의미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단편적인 상식이나 인식뿐 아니라 基本概念의 이해, 탐구력과 종합적 판단력,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等を 포함함으로써 실제로 행동하는 지성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개개인의 人間教育에 기여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國家社會에 공헌해야 한다.

2. 에너지 및 환경교육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等 모든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指導者教育에 계속 포함되어야 하며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교육이 지혜롭게 관련지워져야 한다.

3. 에너지 및 환경교육의 효과있는 성취를 위해서 탐구적인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數學, 技術, 地理, 社會, 道德 등 모든 科目에 걸쳐 관계전문가들과 교사들이 협동하여 연구하고 공동으로 뒷받침을 하여 효과있게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4. 에너지 및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의 환경부터 개선하고 활용해야 하며, 적절한 學級人員과 시설등의 여러 교육조건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5. 에너지 및 환경교육은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바람직한 교육이념과 목표의 설정, 내용 구성, 지도방법, 자료개발, 현장사례, 평가, 教師教育 등에 대한 연구가 광범하고 철저히 수행되어야 한다.

6. 에너지 및 환경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교육생활에 모든 관련과목의 학문적, 교육적 전문가와 行·財政, 獎學,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7. 에너지 및 환경교육의 연구는 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해야 하지만 분산되어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계전문가를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되 공동으로 협동하는 체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8. 에너지 및 환경문제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에너지 및 환경교육의 고급인력인 연구자, 정책결정자, 行·財政 責任者, 獎學指導者 등을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9.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의 대상을 지도할 에너지 및 環境教育者의 교육이 거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0. 에너지와 환경교육을 구호에 그치거나 행정지시로서가 아니라, 全國民이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통찰하고 누구나 솔선해서 수행하도록 教育和 啓蒙方向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11. 에너지 및 환경교육의 연구활동, 教師教育者育成, 教師教育, 現場實施 등에 문교부, 동력자원부, 환경청 등 關係部處가 국가적 政策樹立과 적극적 行·財政的 지원을 담당해야 하지만 관계연구기관, 대중매체기관, 社團法人과 後援財團, 市道教育委員會, 科學館 등 여러 공공기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12. 에너지 및 환경교육은 한 차례 유행과 같이 일시적으로 해버리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계획, 진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탐구과정이고 社會文化的 과업이어야 한다.

韓國科學教育學會의 협조아래 유네스코 韓國委員會가 개최한 “에너지 및 환경교육 워크숍”의 참가자들은 동 워크숍을 끝내며 위와 같이 정리하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뜻을 밝힌다.